2026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KNN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08. 26 (수)	KNN 대회의실	9/14	8	0	17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의구, 강정규, 김덕열, 복성경, 송수진, 이덕환, 이준홍, 이철희, 임수정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호진(경영본부장), 전성호(제작편성본부장), 추종탁(뉴미디어제작본부장), 김성기(보도국장), 김동일(기술국 부장), 국주호(영상제작국장), 허민경(제작국장), 이근호(편성라디오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5	1	0	1	0	0	7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7	0	0	7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청자불만)	최근 날씨 보도에서 부산/경남 폭염 지도를 봤을 때, 시각적 전달력이 아쉬웠음. 지도에 부산/경남을 빨갛게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부산, 양산, 창원, 진해 등 주요 지명을 함께 표시했다면 시청자가 지역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음.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넘어 CG와 지명 표시를 활용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한다면 날시 보도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폭염 지도 CG에 주요 지명을 함께 표기하여, 지역별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함.	'26.7월
보도 (시청자불만)	구마모토 지진 관련 내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임. 특정 소수의 반응을 마치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나 반응인 것처럼 내용이 들어감. 보도 내용을 준비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치내용없음.	'26.8월
보도 (시청자불만)	시청자 제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함.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운영에 대한 궁금증이 생김. 제보는 접수되고 있으나 제보 내용은 비공개 처리로 볼 수 없음. 추가로 제보로 만든 뉴스의 업데이트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치내용없음	'26.8월
교양 (시청자불만)	프로그램 생생TV투데이가 사람, 음식, 문화, 바다,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남아내는 것은 매우 칭찬함. 하지만 음식 관련 콘텐츠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시청자분들께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다른 내용과의 균형을 고려해주면 좋겠음.	조치내용없음	'26.8월

보도 (시청자불만)	KNN의 단독 보도에서 단순한 사건, 사고 전달이 아닌 지역의 기관이나 영향력 있는 개인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직접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함. 지역 사회는 여러 관계들이 복잡해서 취재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료와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었음. 감사와 조사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보여준 것은 지역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함. 한 번의 보도로 끝내지 않고 후속 보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음.	조치내용없음	'26.8월
보도 (시청자불만)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 방안에 법적 한계가 있었으나 KNN 기획보도 이후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됨. KNN에서 공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익으로 활용될 우려를 막음. 긍정적으로 탈바꿈한 사례나 지역 사회에서 폐교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활동가, 예술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조치내용없음	'26.8월
기타 (시청자불만)	청년층에서 가장 파급력있는 SNS는 인스타그램임. 타방송사에서는 기사를 숏폼이나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지만, KNN은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임.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효율적인 운영 및 수익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조치내용없음	'26.8월
총 건수		7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6. 8 ~ 2026. 8)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정민혁	2003.08.07	대학생	임기만료	1달
송유진	2005.05.14	대학생	임기만료	1달
박준영	2006.03.15	대학생	임기만료	1달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전문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성별/생년 (총선임기간)
위원장	강의구	(현)부산영사단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경제단체	남/1946 (20.03.01.~27.03.26)
부위원장	이준홍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	부산지방세무사회	경제단체	남/1965 (22.01.01.~27.03.26)
위원	강문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65 (25.03.26~27.03.26)
위원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학부모단체	남/1967 (23.01.01.~27.03.26)
위원	김덕열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부산방송영상포럼	청소년 단체	남/1980 (25.03.26~27.03.26)
위원	김정환	부산 YWCA 사무총장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64 (25.03.26~27.03.26)
위원	김홍준	㈜무지개약품 대표이사	부산울산경남 의약품유통협회	경제단체	남/1987 (25.03.26~27.03.26)
위원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71 (25.03.26~27.03.26)
위원	송수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학부모단체	여/1990 (25.03.26~27.03.26)
위원	송연익	㈜에스엠홀딩스 대표이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남/1969 (23.01.01.~27.03.26)
위원	이덕환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74 (25.03.26~27.03.26)
위원	이철희	단디병원 병원장	양산시의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78 (22.01.01.~27.03.26)
위원	임수정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조직위원	(사)자연의 권리찾기	소비자보호단체	여/1973 (23.01.01.~27.03.26)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청자 불만)	구마모토 지진 관련 내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임. 특정 소수의 반응을 마치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나 반응인 것처럼 내용이 들어감. 보도 내용을 준비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뉴미디어 인력 부족의 문제로 충원 계획이 있었음. 계획대로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영상이 업로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에 신경써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음.	○		
보도 (시청자 불만)	시청자 제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함.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운영에 대한 궁금증이 생김. 제보는 접수되고 있으나 제보 내용은 비공개 처리로 볼 수 없음. 추가로 제보로 만든 뉴스의 업데이트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개/비공개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음.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나 제보자 신원 노출 우려, 허위 제보 가능성 등이 있어 비공개로 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보 내용이 타방송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청자들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도 보임. 관련 부분의 업데이트 여부 등은 다시 점검할 예정임.	○		
교양 (시청자 불만)	프로그램 생생TV투데이가 사람, 음식, 문화, 바다,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남아내는 것은 매우 칭찬함. 하지만 음식 관련 콘텐츠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시청자분들께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다른 내용과의 균형을 고려해주면 좋겠음.	방송 편성 시간이 5시 40분에서 6시 20분까지로 완전히 저녁 시간대이고, 시청자분들이 음식에 대해 가장 집중하고 궁금해하시는 시간대임. 특히 음식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기획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된 사례도 있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해당 의견은 담당 PD에게 잘 전달하고, 향후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청자 불만)	KNN의 단독 보도에서 단순한 사건, 사고 전달이 아닌 지역의 기관이나 영향력 있는 개인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직접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함. 지역 사회는 여러 관계들이 복잡해서 취재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료와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었음. 감사와 조사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보여준 것은 지역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함. 한 번의 보도로 끝내지 않고 후속 보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음.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중요한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사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보도 (시청자 불만)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 방안에 법적 한계가 있었으나 KNN 기획보도 이후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됨. KNN에서 공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익으로 활용될 우려를 막음. 긍정적으로 탈바꿈한 사례나 지역 사회에서 폐교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활동가, 예술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중요한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사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기타 (시청자 불만)	청년층에서 가장 파급력있는 SNS는 인스타그램임. 타방송사에서는 기사를 숏폼이나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지만, KNN은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임.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효율적인 운영 및 수익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뉴미디어 인력 부족의 문제로 충원 계획이 있었음. 계획대로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영상이 업로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